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218.80원에 마감

24일 환율은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218.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70원 상승한 1,218.50원에 개장했다. 위험회피 분위기에 갭업 출발한 환율은 간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오전 중 1,220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오후 들어 주가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추가 상승하지 못한 채 1,210원대 후반으로 상승폭을 줄였다.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98.8선으로 상승했지만, 엔화 약세에 기인한 영향이 커 달러-원 환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중 변동 폭은 4.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03.2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18.50	1221.50	1217.10	1218.80	1219.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03.53	1008.71	998.52	999.01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5.40	1343.17	1335.06	1340.08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4	0.05	-1.58	-7.06
결제환율(수입)	0.21	0.97	-0.52	-5.11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경기 낙관론 재부상에 위험 선호 회복되며... 1,220원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18.80원) 대비 2.50원 상승한 1,221.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상승 출발 후 경기 낙관론 재부상에 따른 위험 선호 회복 영향에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8.7만 명으로 예상(21.0만 명)을 하회했고, 3월 S&P 제조업 PMI는 58.5(예상 56.0)을 기록하며 2월보다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시장 우려를 불식했다. 뉴욕증시도 긴축 통화정책, 동유럽 전쟁 리스크보다 경기 회복 낙관론에 다시 초점을 맞추며 상승했다. 더불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리스크 온,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 월말을 맞이한 수출업체의 네고 등도 금일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및 저가매수 유입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17.00 ~ 1223.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161.9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50원 ↑
	■ 美 다우지수 : 34707.94, +349.44p(+1.0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7.9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129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